

대한치과의사협회 구강보건인력적정수급에 관한 심포지움

지난 11월 4일 서울 강남소재 르네상스호텔에서



치협은 지난 11월24일 서울 강남 소재 라마다르네상스호텔 회의실에서 구강보건인력수급의 적정화 정립에 효과적 공헌이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관계부처 실무자 일곱분을 모시고 구강보건인력 적정수급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과잉인력이 배출됨으로써 각종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은 물론, 국가적인 인력 자원의 낭비요소가 되고있음을 실감케했다.

이날 심포지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구강보건개발방향
(서울대 치대) 김중배 교수
- 2) 우리나라 구강보건사업 현황 및 계획(보사부 지역의료과장) 이동모 과장
- 3) 우리나라 보건인력 개발방향 (경제기획원 사회개발기획과) 황문연 사무관
- 4) 치과의사 양성 현황과 전망 (단국대 치대) 이재현 학장
- 5) 치과기사 및 치과위생사 양성현황 (문교부 전문대학 행정과) 김용현 과장
- 6) 외국의 구강보건인력 현황과 분석 (경희대 치대) 최유진 교수
- 7) 구강보건인력의 합리적 수급 방안 (연세대 치대) 김중열 교수



齒協會長人事



社會構造는 多元化된 職業群으로 形成되어 있으며 人間은 모든 生活의 最大欲求를 相互充足시키는 巫數關係의 業務에 從事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口腔保健醫療業務에도 齒科醫師를 비롯하여 齒科技工士와 齒科衛生士가 機能的으로 職務를 分擔하여 各己 맡은바 所任에 最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70年代에 접어들면서 高度의 産業社會로 變遷되면서 모든 分野가 急速度로 成長하는 過程에서 國民教育이 促進되면서 人力需給의 体系化된 制度가 施行되지 못하여 不均衡의인 現像이 持續되고 있습니다.

특히 國民口腔保健을 爲한 醫療人力의 需給面에 있어서 그 어느 分野보다 量産體制化된 教育機關이 亂立運營되고 있음으로 因하여 말 할수 없을 程度로 過剩人力이 繼續 輩出되어 各種 社會的 問題가 若起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國家的인 人力資源의 浪費要素가 되고 있으며, 그 深刻性은 날이 갈수록 더욱 深化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緣由로 因하여 우리는 이를 重視하여 當面課題의 하나로 오랫동안 對策을 強究하여 왔으나 이렇다할 解決方案을 樹立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今般協會는 口腔保健人力 적정 수급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실무자를 모시고 본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심포지움이 國民口腔保健의 向上과 發展에 直結되는 口腔保健醫療人力需給의 適正化 定立에 效果的 公헌이 있 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會長 李 鍾 守